

고흥 동호덕고분 남해연안 해상세력 수장묘 확인

백제와 가야 등 여러 문화 융합 국내 최대규모 황구식석실 고분 22일 발굴 현장 일반에 공개

고흥 동호덕고분에서 남해연안 해상세력의 수장묘가 확인돼 주목을 끌고 있다. 고흥군은 최근 발굴조사가 이뤄진 고흥 동호덕고분에서 백제와 가야 등 여러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 규모의 황구식 석실 고분이 확인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고흥군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고대 역사 문화인 '마한 유적 발굴 조사'로 전남도와 고흥군의 지원으로 지난달 10일부터 발굴조사를 시작했다.

조사가 이뤄진 '고흥 동호덕고분'은 분구 규모가 직경 1750cm의 원형분으로 무덤방과 출입시설을 포함한 전체 규모는 길이 884cm, 너비 168~184cm 정도이다.

무덤방의 규모는 길이 704cm, 최대 너비 184cm



고흥군은 재단법인 나라문화연구원과 함께 지난 10월부터 고흥 동호덕고분에 대한 발굴조사를 하고 있다. 고흥 동호덕고분 발굴 현장. <고흥군 제공>

정도인데, 이는 국내에서 확인된 황구식 석실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출입시설은 무덤방 남쪽에 만들었는데, 길이 약 180cm이다.

고분에서는 은제관모장식, 살포, 동경, 대도, 화살통 등의 고대 지역 수장과 관련된 유물과 함께 각종 토기류와 철기류, 옥류 등 300여 점 이상의

백제 및 가야 등과 관련된 유물이 확인됐다. 무덤방 바닥면은 석재와 붉은 토기편을 깔아 공간을 분리했으며, 추가적인 매장을 추정해 볼 수 있는 특징도 확인됐다.

석실의 구조와 출토유물을 통해 과거 고흥지역이 해상항로의 거점 지역의 역할을 했다는 점과 백제 및 가야 등 다양한 문화가 융합된 국내 최대규모의 수장급 고분이 발굴 조사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고흥군과 재단법인 나라문화연구원에서는 이번 발굴조사의 결과를 통해 '고흥 동호덕고분'의 구조와 축조 시기, 특징 등 학술적 논의의 쟁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흥군과 재단법인 나라문화연구원은 발굴 현장을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일반에 공개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우리군 문화원형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적이 확인됐다"며 "역사 문화를 밝힐 기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향후 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역사 문화권 정비계획과 연계해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u@kwangju.co.kr

결항 잦은 여수~거문항로 예비 여객선 투입 첫 운항



여수~거문항로 예비 여객선 거문도사랑호.

여수시 여객선터미널과 삼산면 거문도 항로에 예비 여객선이 투입됐다. 여수시는 그동안 잦은 결항으로 섬마을 주민 불편이 따랐던 거문도항로에 예비 여객선 '거문도사랑호'가 지난 13일 첫 운항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거문도사랑호'는 여수~거문항로 운항시간 변경안을 두고 현 선사와 삼산면 주민들 간 협의 과정에서 선사측이 이날 오후 1회차와 15일 오전 1회차 결항에 대비해 시에서 확보한 예비 여객선이다. 앞서 여수~거문항로는 지난 9월, 10여 일간 결항이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주민들은 여수해수청에 향후 결항에 대비한 예비선을 확보해 줄 것을 꾸준히 건의했으나 뚜렷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했다.

여수시는 '예비선 확보'라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여수해수청과 수차례 간담회 등 협의과정을 거쳤다. 시가 예비선 운영에 따른 재정을 지원하고 여수해수청은 예비선 운항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지원키로 결정 후 지난 10월11일 ㈜해광운수와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여수=김창화 기자-동부취재본부장 chkim@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순천만국정원의 개울길 광장. <순천시 제공>

순천시 '국내 여름휴가 만족도' 전남 지자체 중 1위

정원박람회 영향... 전국 순위 3위 됐다. 전국 1위는 경남 산청군, 2위는 강원 영월군이 차지했다.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1박 이상 국내 여름휴가를 다녀온 1만72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펼쳤다. 조사에서는 '여름 휴가지에 대한 만족도와 휴가지로의 추천 의사'를 물었다. 순천시의 전국 순위는 3위로, 지난해보다 24계단이나 뛰었다. 순천시는 10년 만에 다시 연 2023순천만국제

정원박람회를 성공 개최했고, 지속가능한 관광·캠핑·반려동물 동반 등 다양한 여행 추세를 반영해왔다. 순천시 관계자는 "정원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관광 기반시설을 재정비한 덕분에 여행객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 관광 변화에 맞춘 상품을 개발해 전국 최고의 관광도시 위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같은 기간 열리는 공연 주제는 '남도의 멋과 흥'이다. 첫날 김은숙 가야금병창, 강대승 남도잡가, 이희춘 진도북놀이, 황재중 마동매구가 무대에 오른다. 이날 오후 2시에는 'K-컬처로서 지역무형유산의 가치'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기초 강연에는 함안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발표에는 흥태원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가 나선다. 종합 토론은 정회천 전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정식 포항공대 교수, 박종오 남도민속학회장이 참여한다. 둘째 날 공연에는 박준명 판소리, 선영숙 가야금산조, 박방금 판소리, 김병천 진도북놀이, 김동연 우도농악 등을 만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시 공공배달앱 '떡깨비' 1년 누적 결제 금액 7억 돌파

광양시는 지역 상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모바일 앱 '떡깨비' 누적 결제금액이 7억 4200만원을 넘었다고 14일 밝혔다. 광양지역에서는 전남도 공공 배달 앱인 '떡깨비'를 지난해 7월부터 공식 출시했다. 광양지역 음식점 3319곳 가운데 851곳이 등록해 이용하고 있다. 광양시는 '떡깨비'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연말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떡깨비에서 처음 주문하는 이용객은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할인권은 선착순 1000명에게 지급된다. 기존 회원 선착순 4000명에게는 5000원 상당 즉시할인권을 제공한다. 1일 1회 사용할 수 있다. 떡깨비는 중개 수수료가 1.5%로, 다른 배달 앱에 비해 배달 수수료 부담이 적다. 지역화폐인 광양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어 지역경제 순환 효과도 노렸다. 지역 상인들은 광고비가 무료이며, 가맹점 가입비도 없다. 한편 광양시는 소상공인의 중장기적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소상공인 실태조사용역'을 벌이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보성문화원 16~17일 남도무형유산 전시·공연

오는 16~17일 보성문화원에서 '남도무형유산'을 초청해 전시·공연을 펼친다. 이 행사는 문화재청 공모사업 '2023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사업'의 하나로 진행된다. 보성군의 무형유산의 가치를 탐구하고 이를 문화유산으로 지정·활용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전시·공연에서는 '무형의 품격 전(展)'을 내걸고 남도무형유산 보유자를 대거 초청했다. 전시회는 '남도의 미학'이라는 주제로 이틀간 열린다. 잠빛장 고행주, 나주반장 김춘식, 옹기장 이학수, 낙죽장 이형진, 염색장 정관재 보유자의 작품 등 총 100여 점을 만날 수 있다. 같은 기간 열리는 공연 주제는 '남도의 멋과 흥'이다. 첫날 김은숙 가야금병창, 강대승 남도잡가, 이희춘 진도북놀이, 황재중 마동매구가 무대에 오른다. 이날 오후 2시에는 'K-컬처로서 지역무형유산의 가치'라는 주제의 학술대회가 열린다. 기초 강연에는 함안희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주제 발표에는 흥태원 전북대 무형유산정보연구소 연구교수가 나선다. 종합 토론은 정회천 전북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박정식 포항공대 교수, 박종오 남도민속학회장이 참여한다. 둘째 날 공연에는 박준명 판소리, 선영숙 가야금산조, 박방금 판소리, 김병천 진도북놀이, 김동연 우도농악 등을 만날 수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